

농민 중심 먹거리 전략, 세 토끼 잡는다

경제·소득·안전 중점
군산시 푸드플랜 박차

군산시가 지역 농민을 중심으로 한 먹거리 전략을 적극 펼치며 '지역경제 활성화', '농업인의 소득증대', '시민들의 안전한 먹거리' 등 세 마리를 토끼를 잡는데 주력하고 있다.

민선 7기 군산시 농업정책의 핵심은 △안정적인 공공급식시스템 구축 △안전성을 보장한 최소수준 이상의 안전기준 및 관리시스템 구축 △전북도와 시·군간 협력하는 먹거리 거버넌스 및 유통체계 구축 등 지역 먹거리 전략의 효율적인 추진에 있다.

이의 일환으로 시는 먼저 기존 농산물유통과를 먹거리정책과로 개편하는 한편 푸드플랜 선도지자체 선정 및 푸드플랜 수립, 로컬푸드 공공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재단법인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다.

군산시 푸드플랜과 재단법인 군산 먹거리통합지원센터라는 중간지원조직을 통해 지역에서 생산된 먹거리들이 안전성과 체계적인 관리 속에서 시민들에게 공급되고 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자본의 흐름을 지역 순환방식으로 전환하고,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도록 기여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시는 농산물의 품목



강일준 군산시장이 지난달 옥서면 해품벼 재배단지 벼 수확 현장을 방문해 농업인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별, 농가별 관리를 통해 친환경농산물·지자체인증농산물·축산물 및 수산물의 체계적인 기획생산체계 구축으로 안정적인 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시에서 생산된 농축산물을 주원료로 가공·생산·상품화작업을 통해 원료 지역화에 도움을 주고 있으며, 새로운 제품개발 및 식품분야 창업의 진입장벽 해소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소규모 식품제조기업 육성에도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지난 2019년 9월,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균형발전사업 우수사례로 '군산시 농산물가공지원센터(농

부의 식품공장)'가 선정된 바 있다.

올해에 완공되는 농부의 식품공장 2공장이 가동되면 더 많은 농민이 지역 먹거리를 이용한 다양한 농산물 가공품을 맞춤형으로 제조 공급될 예정이다.

시는 맥아 및 수제맥주 산업화를 통해 지역농업과 연계한 대한민국 대표 수제맥주 산업도시로 육성하는데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 관계자는 "2조 7000억이 넘는 군산시 먹거리 경제시장에 지역 농축수산물 및 지역가공업체들이 생산한 먹거리로 지역화를 이뤄 지역경제를 견인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군산=이환규 기자**

지역먹거리지역서생산·소비...군산푸드플랜 성과

패키지 지원사업 선정
먹거리재단 설립 운영
로컬푸드 직매장 확대

민선 7기 군산시의 농업 핵심정책인 군산시 푸드플랜(먹거리 전략)이 호응을 얻고 있다.

시는 지역 먹거리전략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누구에게나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공공급식시스템 구축 ▲군산에서 유통되는 먹거리의 안전성을 보장하고 최소수준 이상의 안전기준 및 관리시스템 구축 ▲전라북도와의 시·군간 협력하는 먹거리 거버넌스 및 유통체계 구축에 나섰다.

시는 지역 내 먹거리 선순환체계를 구축해 지역사회 중심으로 먹거리와 관련된 다양한 요소들을 연계시켜 가치를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농업인의 소득증대, 시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농업의 범위를 생산에서 소비자의



지난 7월 20일 군산농협 로컬푸드 직매장 개점식.

법상으로 넓게 인식하고 농산물유통과 먹거리정책과로 개편한 시는 푸드플랜 선도지자체로 지난 2019년 전국 9개 지자체 중 푸드플랜 패키지 지원사업에 선정(2019~2022년)됐다.

또한, 푸드플랜 수립, 로컬푸드 공공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재단법인 군산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립

(2020.09.01. 재단 출범) 타당성 연구용역을 추진해 군산시가 출연한 먹거리재단을 설립해 운영 중이다.

특히, 지역에서 생산한 안전한 건강한 먹거리를 시민에게 판매하는 로컬푸드 직매장이 확산되고 있다.

현재 육산농협 로컬, 군산농협 로컬, 재단법인 군산 로컬푸드 직매장 3개소

가 운영하고 있으며, 오는 2022년에는 2개의 로컬푸드 직매장이 추가로 건립된다.

아울러, 읍에는 군산 로컬푸드의 안전성을 담보로 하는 시 로컬푸드 지자체 인증제를 시행함으로써 로컬푸드 직매장, 공공급식 등 로컬푸드 연계 농산물의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가능하게

된다.

또, 지역에서 생산된 농축산물을 주원료로 가공, 생산, 상품화작업을 통해 원료 지역화에 도움을 주고 있으며, 새로운 제품개발 및 식품분야 창업의 진입장벽 해소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소규모 식품제조기업 육성과 활성화를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지난 2019년 9월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는 균형발전사업 우수사례로 '군산시 농산물가공지원센터(농부의 식품공장)'가 선정됐다. 올해에 완공되는 농부의 식품공장 2공장이 가동되면 더 많은 농민이 지역 먹거리를 이용한 다양한 농산물 가공품을 맞춤형으로 제조 공급할 계획으로 농촌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군산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식생활 교육 및 소비자 조직화를 통해 2조 7000억원이 넘는 군산시 먹거리 경제시장의 활성화는 물론, 먹거리와 관련된 다양한 분야에서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군산=김영철기자·kang08

전북중앙

2021년 10월 13일 수요일 010면 지역

친환경 먹거리 푸드플랜 박차

군산 공공급식시스템 구축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로컬푸드 연계 안전관리등

군산시 농업기술센터가 농업의 핵심정책인 푸드플랜을 통해 친환경 먹거리 정책 추진에 행정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는 지역 먹거리 전략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누구에게나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공공급식 시스템을 구축했다.

또한 군산에서 유통되는 먹거리의 안전성을 보장하고, 최소 수준 이상의 안전기준 및 관리시스템 구축과 도내 시군간 협력하는 먹거리 거버넌스 및 유통체계 구축 등에 힘쓰고 있다.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 및 농업인 소득증대, 시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먹거리 전략을 추진 중이다.

농산물유통과를 먹거리정책과로 개편한 군산시는 지난 2019년 전국 9개 지자체 가운데 푸드플랜 패키지 지원사업에 선정됐다.

또한 푸드플랜 수립과 로컬푸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에 이어 지난 2020년 9월에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출범했다.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는 지역에서 생산한 먹거리들이 안전성과 체계적인 관리 속에서 시민들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자원의 흐름을 지



군산시 로컬푸드 직매장 모습.

역 순환방식으로 전환하고,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다.

군산시는 지역에서 생산한 안전한 건강한 먹거리를 시민에게 판매하는 로컬푸드 직매장을 확산시키고 있다. 이에 현재 육산농협 로컬푸드와 군산농협 로컬푸드, 군산로컬푸드 직매장 등 3개소가 운영중이며, 오는 2022년에는 로컬푸드 직매장 2개가 추가로 건립된다.

특히 시는 읍에 로컬푸드의 안전성을 담보로 하는 지자체 인증제를 시행, 로컬푸드 직매장과 공공급식 등 로컬푸드 연계 농산물의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가능하게 됐다.

시는 안전분석실을 운영해 안전품질관리 검사를 하고 있으며, 지난 8월말 기준으로 608명의 농업인이 로컬푸드 출하 및 안전성 교육을 이수했다.

또한 180여 농가가 인증을 신청해 인증제 부여를 위한 토양과 농산물의 안전성 검증을 진행하고 있다.

군산시 농업기술센터 행정석 소장은 "식량산업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해 쌀 경쟁력 제고 및 식량작물 공동영양체 중심의 식량작물 생산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23억6,000만원을 투자해 시설장비 및 농자재 등을 지원하고 있다"며 "논타 작물 및 밭식량 작물 기반조성을 위한 사업 다각화로 식량작물의 품목을 다양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식량사업분야 핵심과제인 지역농협 RPC 및 DSC를 통해 공동법인을 설립하고, 공동브랜드 개발을 통한 일관된 마케팅 전략으로 생산량 대비 70% 이상 과잉 공급되는 쌀을 수도권 등에 공급하는 새로운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군산=김기현기자

군산 '먹거리 전략', 지역경제 활성화 견인

푸드플랜·조례·지원센터 등 설립
친환경 먹거리 안정적 공급 '호응'

군산시가 역점적으로 추진중인 농업 정책 '먹거리 전략'이 실효를 거두고 있다.

특히 양질의 먹거리를 친환경적으로 생산해 취약계층 등 모든 시민에게 충분히 공급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민선 7기 군산시 농업정책 핵심은 ▲누구에게나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공공급식시스템 구축 ▲먹거리 안정성 보장과 최소수준 이상의 안전기준 및 관리시스템 구축 ▲전라북도 와 시·군간 협력하는 먹거리 거버넌스 및 유통체계 구축 등이다.

지역 내 먹거리 선순환 체제를 갖춰 지역사회 중심으로 안전한 먹거리 관련 가치를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농민들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겠다는 구상.

농산물유통과를 먹거리정책과로 개편, 푸드플랜 수립, 로컬푸드 공공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재단법인 군산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립 등도 이런 일환. 이런 노력은 전국 9개 지자체 중 푸드플랜 패키지 지원사업 선정이란 쾌거를 일궜다.

공공 급식 분야에서도 명성을 떨치고 있다. 군산 지역 학교급식은 물론 서울시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은평구·영등포구 도농상생 공공 급식, 전북 서부권 물류공급, 지역아동센터 급식, 어린이집과 유치원 친환경급식 공급을 책임지고 있다.

아울러 군산대를 비롯해 관내 513개소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에게 친환경쌀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먹거리 접근성 확보를 위한 로컬



군산시가 역점적으로 추진중인 농업 정책 '먹거리 전략'이 실효를 거두고 있다.

푸드 정책 역시 결실로 이어졌다. 로컬푸드 직매장 확산이 대표적 사례다. 현재 옥산농협 로컬, 군산농협 로컬, 재단법인 군산 로컬푸드 직매장 3개소가 운영중이고 내년 2개의 로컬푸드 직매장이 추가로 건립된다. 이는 농민들에게 안정적인 출하처 확보와 시민들은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손쉽게 구매하는 일석이조 효과가 기대되는 대목이다.

시는 또 군산 로컬푸드의 안전성 담보를 토대로 로컬푸드 지자체 인증제를 시행함으로써 로컬푸드직매장, 공공급식 등 로컬푸드 연계 농산물의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가능해졌다. 안전분석실을 운영해 안전품질관리 검사에 심혈을 기울인 결과 지난 8월 말 현재 농민 608명이 로컬푸드 출하 및 안전성 교육을 이수했고 180여 농가가 인증을 신청했다.

이런 여세를 몰아 컵푸드를 활용한 공

유주방, 공유부엌, 로컬카페, 대학생 아침밥 지원사업 등 지역 내 먹거리 소비의 다양한 플랫폼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한 필요한 먹거리를 위한 기획생산에 주력,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다. 안정적 생산을 위한 토양개량사업,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스마트팜 도입 등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과학적인 재배방법 등을 도입, 진행중이다.

노지 채소 기계화단지 조성 등 생산기반을 높이고 로컬푸드 직매장 활성화를 위한 소규모 다품목 생산 농민 1천명을 육성했다. 맥아 및 수제맥주 산업화도 현실로 다가왔다.

군산시 먹거리정책과 김선주 과장은 "2조7천여원으로 예상되는 군산시 먹거리 경제시장에 능동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를 견인하겠다"고 말했다. 군산=정준모 기자